

Alex Blanchette, *Porkopolis: American Animality, Standardized Life, and the Factory Farm*.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20. 320 pp.

황교련†

“포코폴리스(Porkopolis)”는 시카고대학교에서 인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알렉스 블란체트(Alex Blanchette)가 미국 공장식 돼지 축산업의 현장에서 노동하며 집필한 현지조사의 산물이다. 그는 대중적인 이미지 속에서 극도로 산업화, 기계화되었다고 여겨지는 미국 공장식 축산업의 실제 현장 속으로 뛰어들어, 돼지를 통한 상품 생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석했다. 그가 ‘딕슨(Dixon)’이라고 부르는 미국의 마을은 가칭 ‘도버 식품(Dover Food)’이라는 식품 회사가 버티고 있는 곳이다. 여기에서는 인간의 숫자보다 훨씬 많은 연간 약 5,600만 마리의 돼지가 도축되며, 늘상 1억 마리의 돼지가 수용되어 있다(3). 블란체트는 딕슨이라는 거대한 노동의 현장에 들어가 수정, 분만, 비육, 도축 과정에서의 인간과 돼지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다현장의(multisited), 다종적(multispecies) 민족지 연구를 수행했다.

책의 구성은 산업용 돼지의 생애사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배치되어 있다. 1부는 산업적으로 개체 당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닌 웅돈(Boar)이라는 제목 아래에서, 각 수컷 돼지들이 만드는 거대한 관리의 단위인 “무리(herd)”의 개념, 그리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생물보안의 실행들을 보여준다. 2부는 새끼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하는 모돈(Sow)을 중심으로, 인공수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간과 돼지라는 두 종간 육체노동의 젠더화된 실행을 보여준다. 3부에서는 비육돈(Hog)에 대한 노동으로, 인간의 친밀한 노동이 어떻게 갓 태어난 새끼 돼지를 생존시키고 표준적인 집단으로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준다. 4부는 도체(car cass), 즉 죽은 이후의 돼지라는 제목 아래에서, 돼지의 도축 노동 현장이 인간과 돼지 양쪽의 몸을 표준화하는 고된 노동의 현장임을 보여준다. 5부에서는 내장(Viscera)이라는 제목으로 회사가 적극적으로 젤라틴, 단백질, 혈청 등 새로운

† 서울대학교, krhwang27@gmail.com

돼지의 산물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추출 과정이 세계의 물질적 기반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포착한다.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롭게 드러나는 측면은 인간과 다른 종과의 관계 속에서 오래된 자본주의 전략의 구체적인 구현 양상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저자는 노동자들과 돼지들의 노동에 대한 관찰을 통해, 흔히 자동화와 동물의 표준화로 인해 “탈산업화(deindustrialization)”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대중의 착산업에 대한 통념을 비판한다. 블란체트는 공장식 착산업이 탈산업화의 길을 따른다고 보다는 “과산업화(hyperindustrialization)”의 과정에 가깝다고 지적한다(5). 하층 노동자들은 돼지에게서 멀찍이 떨어져 계산이나 기계 작동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돼지에 대한 친밀함과 그를 바탕으로 한 체화된 이해를 통해 고된 노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자본의 논리에 따른 철저한 분업과 노동 소외의 일부를 이룬다. 또한, 리스크를 줄이고 효율성을 올리고자 하는 자본주의의 전략인 돼지에 대한 예측과 표준화는 탈산업화의 신화와는 달리 실제로는 상당히 불완전한 기획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틈새는 인간 노동자들의 표준화와 과로를 통해 메워진다. 이러한 전략들은 새로운 산업의 전환, 혹은 소멸이라기 보다는 인간-비인간의 재배치를 통한 자본주의적 전략의 심화, 그리고 비가시화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블란체트가 책 전체에 걸쳐 분업과 노동 소외의 측면을 다루는 방법은 노동의 양상이 돼지라는 종과 경계 없이 얹혀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전통적인 맑시스트 비판과 상당히 닮았다. 공장식 착산 현장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크게 관리자와 노동자로 나뉠 수 있다. 관리자들은 노동의 투입과 효율을 조망하면서 전체적인 무리(herd)의 수와 흐름을 관리한다. 관리자들의 경영 이데올로기를 보여주는 “생물학적 시스템(biological system)” 개념은 기계와 노동자, 생물을 포함한 모든 요인에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유동적인 대처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주로 쉽게 대체 가능한 히스패닉계 도시 실업자들로 이루어진 노동자들은 다른 부서와 고립된 현장에서 돼지와 상호작용함으로써 직접 돼지들의 삶에 개입하는 역할을 맡는다(198). 이 공동체 안에서 인종적, 성적, 경제적 위계는 거의 변화하지 않는다(53).

딕슨의 노동자들을 작업의 전체 흐름으로부터 소외시키고 한 가지 노동에만 종사하도록 강제하는 가장 강력한 논리는 “생명안보(biosecurity)”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착산업에서 이윤의 가장 큰 적은 밀집된 사육 환경 속에서 유전적으

로 일원화되어 길러지는 전염병이며, 질병의 통제는 그 자체로 자본의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적인 방법이다. 블란체트는 노동자들의 생계나 권리보다 생명안보가 중요해지는 순간을 목격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관리자들은 구제역이 유행할 때 각각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세자르(Cesar)라는 한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이 모두 분리되어 거주하도록 했고, 자돈 농장에서 일하던 다른 한 노동자는 남편이 돈을 조금 더 버는 도축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자기 일을 그만두어야 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47). 누군가에게 건강이나 이윤을 보장하는 생명안보의 논리가, 축산업의 육체 노동자들에게는 생계의 박탈과 고립의 위협으로 나타난 것이다.

전염의 위험과 노동의 효율성으로 인해 각 부서에 공간적으로 고립된 노동자들은 자신이 작업하는 돼지들에 대해 긴밀하지만 제한된 이해를 기반으로 육체 노동을 행한다. 이는 물론 젠더화된 비유가 돼지의 근골격계와 약품, 그리고 노동 방식에 이식된 결과이기도 했다. 인공수정은 경제성이 높은 형질을 가진 수컷의 정자를 효율적으로 재분배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으로, 암컷 돼지에게 수컷 돼지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감각적, 화학적 자극을 통해 반응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동반한다. 이러한 작업은 대체로 히스패닉 남성들이 수행하는데, 노동자들은 스스로가 “돼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능숙하게 암컷 돼지의 행동을 이끌어냈다(81). 한편 “새끼 돌보미(runt feeder)”라고 불리는 여성 노동자들은 새끼 돼지가 20일만에 “표준적인” 몸무게에 도달하도록 하는 돌봄 노동을 담당했다. 이 여성들은 생리학적 과로로 인해 더는 새끼를 돌보지 않게 된 어미 돼지들의 행동을 보충하는 보철(prosthetics)과도 같았다(124). 이러한 과정에서 본능이라는 것은 인간이나 돼지들에게 내재한 속성이라기보다는 자본주의하에 서의 다중적 실행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에 가까웠다(90).

이처럼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 그 자체보다는 돼지의 몸과 인간의 노동 사이의 긴밀한 연결(혹은 착취)이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 대체로 약품의 투여가 인간의 노동을 줄이고 생산성을 늘린다는 인식과는 달리, 암컷의 재생산 주기를 조절하기 위한 옥시토신과 같은 동물 호르몬은 아주 조심스럽게 투여되어야 하고 투여 후 지속적인 감시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노동-심화 약품(labor-intensifying drug)”이라 부를 수 있었다(135). 도축장 내에 있는 진료소에서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엑스선 검사를 포함한 다양한 근골격계 검사를 시행한 다음, 도축장의 “해체 라인(disassembly line)”의 어느 위치에 적합한지를

판정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노동자들은 이러한 검사에 따라 알맞은 자리를 배정 받는데, 예를 들어 “바닥 깎기(cut floor)” 작업은 반복적인 일을 잘 견디는 사람에게, “핸들링(handling)” 작업은 더욱 활동적인 성향의 사람에게 부과되었다(189). 이들은 건강이 악화되면 다른 부서로 이동하기를 반복하는데, 이를 두고 저자는 “잉여 건강(surplus health)”이 축산업의 새로운 이윤의 원천인 셈이라고 지적한다(180). 즉 저자는 관리자들의 시선에서 포착되는 생산성 통계의 착시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비가시적 인간 노동의 심화가 생산성 향상의 핵심적인 요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돼지의 몸이 변화하는 과정은 유전적, 생리학적 개량과 노동자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다. 도버 식품과 같은 기업은 돼지의 '사후 여정(postdeath ventures)', 즉 죽음 이후에도 돼지의 몸을 통해 가장 높은 이윤을 얻을 방법을 고민한다. 이는 도축장 바깥에서 존재하는 수요를 포착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쓰임새를 개발하여 시장을 만들어내는 적극적인 발굴의 과정에 가깝다. 도버 식품에는 자체적인 원심분리기가 있어서, 이를 통해 의약품 혈장으로 사용되는 돼지의 피, 그리고 젤리, 인쇄물, 섬유, 약 등에 쓰이는 돼지가죽의 젤라틴 등 다양한 물질들을 추출한다. 가장 인상적인 예시 중 하나는 고양이 사료를 만들기 위한 한 식품 기업의 노력인데, 이들은 돼지의 부산물을 다양한 조합과 요리법으로 가공하여 고양이들을 대상으로 관능 평가를 시행하기도 했다(224). 이는 노동자들의 잉여 건강을 착취하는 것처럼 “잉여 죽음(surplus death)”을 착취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214). 일상적 상품이 불러오는 노동과 환경 측면에서의 이 같은 악화는 탈산업 세계에 대해 우리가 가진 막연한 환상을 재고하게 해준다(222).

우리는 블란체트의 “과산업화”된 돼지 농장의 대안적인 서사를 통해서 다른 종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인간들과 어떻게 함께 지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볼 수 있는가? 이 책을 통해 대안을 상상하기 힘든 이유는 일정 부분 육체노동 현장이라는 축산업의 특정한 장소에 연구가 집중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인간 노동의 대응물로서 조작되고 변형된 돼지들이 주로 연구되고 만들어지는 장소는 회사 바깥의 육종 회사와 실험실이며, 이러한 돼지들을 일차적으로 요구하는 소비자들, 그리고 이러한 산업을 경제적, 정치적 기회로 생각하고 특정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국가 역시 중요한 행위자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이 과학기술학 연구에서 관심을 두는 주제인 지식과 인공물이 “만들어지는 과정”

을 면밀히 보여주는 데에는 다소 소홀했던 면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추후 현대 농업에 관한 과학기술학적 관점에서의 역사적 검토나, 다양한 공간에서의 민족지 연구들을 통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¹

노동 현장에 다소 집중된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지닌 중요한 가치는 환경과 노동, 여러 물질적 상호작용들이 현대 자본주의 하에서 어떤 방식으로 표상되며, 그것이 얼마나 실제와 다를 수 있는지, 그리고 역으로 실재를 특정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지를 날카롭게 제시한다는 점에 있다. 돼지의 과로와 하층 노동자들의 노동이 대중들의 인식 속에서 지워진 것은,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려는 자본의 전략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가를 새삼 깨닫게 해준다. 저자는 2019년에 출판된 “자연은 어떻게 일하는가?(How Nature Works?)”라는 편집서의 서문에서 동식물이나 생명공학 기술을 마치 에너지를 농축하거나 의약품을 합성해내는 기계처럼 묘사하는 과학기술학 연구들을 비판하면서, 그러한 대상들을 노동자로 볼 것인지, 기계로 볼 것인지, 혹은 심지어 생물학적 공장으로 볼 것인지의 선택 역시 정치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² 이러한 저자의 목소리는 복잡한 물질적 상호작용과 자본주의적 맥락 속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과학학 분야 연구에, 비인간들과의 물질적 관계에 대한 새로운 관심뿐 아니라, 보다 예민한 언어적 감수성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¹ 돼지와 관련된 지식과 이에 따른 인공물로서의 특징이 국가적 목표와 결합한 사례에 대한 역사적 연구로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Tiago Saraiva, *Fascist pigs: Technoscientific organisations and the history of fascism* (MIT Press, 2018); Thomas Fleischman, *Communist Pigs: An Animal History of East Germany's Rise and Fall*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20). Sigrid, Schmalzer, "Breeding a better China: Pigs, Practices, and Place in a Chinese County, 1929 - 1937." *Geographical Review* 92(1) (2002), 1-22. 이 중 Fleischman의 책에 대해서는 김성화의 서평을 참고할 수 있다. 김성화, "(서평) Thomas Fleischman, *Communist Pigs: An Animal History of East Germany's Rise and Fall*.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20. 268 pp.", 『한국과학사학회지』 42:3 (2020), 767-772.

² Sarah Besky and Alex Blanchette, "Introduction: The Fragility of Work" in Sarah Besky and Alex Blanchette eds., *How nature works: Rethinking labor on a troubled planet*. (University of New Mexico Press, 2019). 12-15.